

1. 돈!에 관하여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있어도,
돈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 『돈은 중요하다』 중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히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돈이 가진 힘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곱씹을수록, 단순히 ‘옳다/그르다’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만큼 돈이 현실에서 가지는 힘과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삶의 선택과 문제 해결의 상당 부분이 돈으로 측정됩니다. 의료, 교육, 주거, 교통, 심지어 인간관계와 여가마저도 경제적 자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때로는 ‘구원자’나 ‘안전망’과 같은 역할까지 수행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안타깝고,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하기도 때론 두렵기도 한 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삶에서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할까요?

성경은 돈과 재물의 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돈과 재물에 관한 언급이 2,350회 이상 등장합니다. 기도나 믿음 관련 구절이 약 500회 정도임을 고려하면, 성경이 물질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물질과 재물의 중요성을 자주 다루셨습니다. 공관복음서의 여섯 가지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물질과 관련되어 있고, 신약성경 38개의 비유 중 12개가 재물과 물질에 관한 것일만큼 성경은 돈의 현실적 영향력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과 예수님은 물질과 돈에 대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동시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돈은 적절히 사용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신앙과 관계를 해치고, 영적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am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을 마치 하나님과 대등하게 섬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주인’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돈의 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하면서도 유익하고, 동시에 위험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돈과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실제적 삶의 적용을 함께 탐구하면서, 우리가 돈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길을 고민해보려 합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처음 제시된 글(“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 _____

- 우리의 삶에서 돈의 영향력을 강하게 체감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_____

- '성경이 돈과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_____

-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집착했던 적은 언제였나요?

→ _____

- 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다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이 가진 힘과 영향력 앞에서 솔직히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안전망이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의 힘을 무시하지도, 그 힘에 지배당하지도 않게 하소서. 돈을 통해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